

# 고물가·중동악재에 투자심리 꾀꾀... 강세 기대감은 여전

##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

채굴 보상 3.125BTC로 감소  
금리인하 지연에 상승세 주춤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제한적  
반감기 이후 장기 상승세 예상”



비트코인 반감기가 완료되면서 가격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4번째로 맞이했지만, 고물가 지속과 중동 분쟁 리스크로 투자심리가 얼어 붙었다. 시장에선 단기적인 하락은 발생하겠지만 반감기로 인한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 정점은 연말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19일(현지시간) 완료됐다.

이번 반감기가 완료되면서 비트코인 공급량은 하루 약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들게 됐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은 기존 6.25BTC(비트코인)에서 3.125BTC

C로 줄어든다. 첫 채굴 보상은 50BTC에서 시작됐다. 지금까지 네 번의 반감기를 거치며 지금의 3.125BTC가 됐다.

### ◆ 반감기 돌입... 상승 전망 우세

반감기 시작으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대했지만 상승세는 주춤하다. 중동 분쟁과 미국 물가 상승으로 기준금리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8일(현지시간) 6만 3000달러대에서 움직이다가 오후 10시경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 공격

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5만9800달러까지 하락했다. 6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된 것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약 50일 만의 일이다.

지난 13일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습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6만7000달러대에서 6만달러대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6월보다 지연되면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채권값 하락), 유동성이 위축된 점이 비트코인 투자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2%를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확신하기까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시장에 악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

오고 있다.

과거 세 번의 반감기(2012년, 2016년, 2020년)에서는 반감기 후 과파른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지만, 상승 사이클 시작은 반감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 ◆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제한적”

지난 2012년 11월 당시 10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6개월 후인 2013년 5월 148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1380% 폭등했다.

두 번째 반감기였던 2016년 7월에는 650달러를 기록, 이후 6개월 뒤 1100달러를 기록하면서 70% 상승했다. 이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7년 12월 1만6000달러를 돌파했다.

세 번째 반감기인 2020년 5월에는 8100달러에서 6개월 후 처음으로 1만 8000달러 돌파했고, 3개월 뒤에는 6만 1000달러를 기록했다. 9개월 사이 653% 상승하면서 반감기 효과를 톡톡히 봤다. 또한 전쟁 역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2년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도 4500만원까지 하락한 비트코인 가격은 2주 뒤 5600만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분석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미 연준의 조속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열려져 가고 있고 중동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감기 이후에 장기 상승세가 시작된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지난 세 번의 반감기를 통해 잘 알고 있으며, 수요가 다시 몰리면 공급 충격으로 인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고금리에 車할부 역성장... 카드사, 오토캐시백 강화

### 6개사 車할부 자산 10년만에 감소 삼성카드 등 오토캐시백 환급률 ↑

경기하락에 신차 구매 수요가 감소하면서 카드사가 오토캐시백 환급률을 인상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빅테크사와 환급 비용을 함께 부담하면서 인상 여력을 높였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드사 6곳(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우리·비씨)이 취급한 자동차할부 자산은 9조6387억원이다. 1년새 9.8% 줄었다. 고금리 여파에 소비자들의 구매여력이 떨어지면서 취급고가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신차 구매 수요가 쪼그라든 것으

로 분석했다.

신차 구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업계는 오토캐시백 강화 카드를 빼들었다. 자동차 플랫폼과의 협업이 시들해지자 빅테크사로 눈을 돌렸다. 현재 네이버와 함께 오토캐시백 상품을 취급하는 카드사는 5곳(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이다. 카드사 자체 캐시백에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더해 결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최근 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카드다. 차량가격의 1.7%를 환급한다. 현대 올 뉴 그랜저 2.5 가솔린(3743만원)을 구매하면 현금 37만원과 네이버페이 포인트 26만원을 돌려준다. 카드사 자체 캐시백 1.0%에 네이버페이 포

인트 0.7%포인트(p)를 추가했다.

현금 환급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카드다. 자체 혜택 1.3%에 네이버페이 포인트 0.1%p를 추가로 지급한다. 같은 차량 기준 현금과 포인트를 합쳐 돌려받을 수 있는 총잔액은 롯데카드 대비 11만원 가량 적지만 현금만 놓고 보면 하나카드가 11만원 더 준다. 네이버페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카드 캐시백으로 눈을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

삼성카드의 오토캐시백 환급률은 1.1%다. 이어 ▲신한카드(1.0%) ▲우리카드(1.0%) ▲KB국민카드(0.8%) ▲현대카드(0.8%) 순이다. 네이버와 오토캐시백 협업을 진행하지 않

는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를 제외한 카드사 3곳 모두 자체 캐시백에 네이버페이 포인트 0.1%p를 추가로 제공한다.

카드업계가 빅테크사와 협업으로 오토캐시백 비중을 높이는 배경에는 비용 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자체 캐시백에 플랫폼사가 포인트 적립 비용을 부담하면서 경쟁력을 높인 것이다. 올해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빅테크사와 협업은 장기적으로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연체율 해소와 신용판매를 동시에 늘릴 수도 있다. 오토캐시백은 일시불 결제에만 혜택을 적용하는 만큼 할부 상품 대비 연체 가능성이 낮다. 아울러 한 번에 수천에서 수억원까지 승인되는 만

금 점유율 확대에도 효과적이다.

연내 2~3%대 현금성 오토캐시백은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21년 자동차플랫폼과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최대 3%대 캐시백 행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채권 금리가 높다는 설명이다. 올해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여전채(AA+/3년물) 금리 하단은 연 3.75%다. 지난 2021년 상단(연 2.61%)과 비교해도 1.14%p 높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조달비용이 높다고 판단하는 만큼 오토캐시백 환급 여력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며 “여전채 금리가 2021년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각 사별 운영정책에 따라 인상 여부가 갈리는 만큼 혜택이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선기자 kimsan119@

## 넷째 주 전국 7개 단지서 3638가구 분양

### 분양 캘린더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3638가구(일반분양 337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진아레히’,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 전남 여수시 소라면 ‘힐스테이트죽립더프라우드’ 등에서 청약이 진행됐다.

건보주택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 강원 원주시 원동 ‘원주푸르지오더센트럴’, 충남 아산시 탕정면 ‘다샵탕정인피니티시티2차’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현대건설과 길축산업개발은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립1지구(죽립리 222) A2·A4블록에서 ‘힐스테이트죽립더프라우드’를 분양한다. A2블록은 지하 3층~지상 23층, 15개동, 931가구 중 공공

분양 802가구, 민영주택 129가구를 분양한다. A4블록은 지하 2층~지상 23층, 5개동 총 341가구를 분양한다. A2·A4블록은 전용면적 74~106㎡ 총 1272가구 규모다.

단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위치해 공동주택과 학교, 공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됐다. 개발 완료 시 앞서 완료된 죽립2지구와 함께 약 9000가구의 신형 주거타운이 될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서 광명제9R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동, 1509가구 중 전용면적 39~59㎡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철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근접하며 차량 이용 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다. /김대환 기자 kdh@



지난 18일 김승영 이사케이 대표(왼쪽부터), 유재영 유니트아이엔씨 대표, 김평수 삼보계량시스템 대표, 조병규 우리은행 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민복기 우리은행 구로금천 영업본부 본부장이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에서 현판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 우리은행 서울디지털산단에 ‘BIZ프라임센터’

우리은행은 서울 구로 지역에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픈한 BIZ프라임센터는 지난해 7월 조병규 은행장 취임과 동시에 ‘기업금융 명가 재건’의 첨병 역할을 위해 탄생한 중소기업 특화 채널이다. 이곳은 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투·융자를 통한 자금조달 및 기

업컨설팅과 자산관리 특화서비스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3년 7월 반월·시화를 시작으로 ▲남동·송도 ▲창원·녹산 ▲대구·경북 ▲울산 ▲호남에 이어 이번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BIZ프라임센터를 잇달아 개설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하나금융 발달장애 예술가 미술공모전 시상

하나금융그룹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미술공모전 ‘제3회 하나아트버스(Hana Artvers)’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아트버스 미술공모전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전국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회화 분야 548명, 디지털아트 분야 36명으로 총 584명의 발달 장애인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한양대학교 미술디자인교육센터 심사위원단(심사위원장 김선아 교수)의 심사를 거쳐 아동·청소년, 성인 등 모두 30명을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인 부문 대상은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의 박재영 작가가 수상하고, 아동·청소년 부문 대상은 ‘나의 안식처’라는 작품을 공모한 손우진 작가가 수상했다. /나유리 기자